

25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출애굽기 19장 1절 ~ 20장 21절



하나님께서서는 율법과 계명을 직접 기록하신 들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나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삼 개월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는 보았느니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삼 일에 시내산에 나타나리니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라. 산에 오르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성경 암송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20)

하나님께서서는 삼 일 후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은 연기가 ¹⁾자욱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 백성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경고한 후 산에서 내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백성은 우레와 번개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지킬 율법을 주셨습니다.

¹⁾자욱: 연기나 안개 같은 것이 아주 짙게 끼여 있는 모습



여러분이 시나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약속을 창세기 12:1~3을 읽고 적어 봅시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법에 대해 아주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록 하셔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130:3)



다음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유를 써 보세요.



아~!
얼굴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더럽잖아!



가서 물로
씻어야지!



아~!
나는 죄인인가
봐!



아~!
나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20)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까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분인가 봐.
내가 저런 법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



나의 육체의 죽음으로 죄인인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늘은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죄를 지어서 너무
죄송해요. 저 때문에 속상하셨죠?
그래도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세요.



그의 의 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으로 말미암아 케 하사 (골로새서 1:20~22)



밑줄 그은 자기와 그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기

그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나에게
똥똥하다고 놀렸지만
저는 당연히 응서해
주었어요.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가 교회에
가지 말라고 꾸중하셨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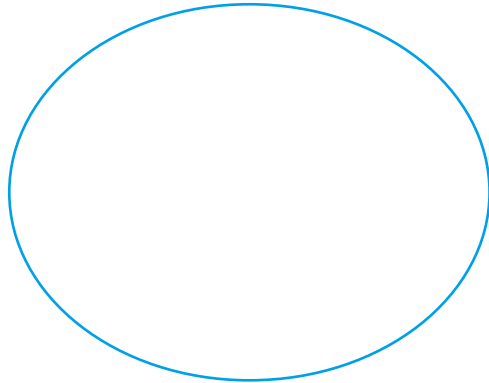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아래 동그라미 안에 내 얼굴을 그리고 옆 페이지 그림의 친구들처럼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해 보세요.



A spiral-bound notebook with a light blue cover and fiv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서 5:2)**

이 외에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4~7까지 읽고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